

Healthcare Issue Comment

헬스케어/스몰캡 문경준

02) 6915-5776

juninearth@ibks.com

[제약/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Preview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2020년 1월 13일(월)부터 1월 16일(목)까지 4일간 07:30~18:30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본 행사는 가장 영향력 있는 헬스케어 행사 중 하나로 행사를 통해 기업들 간의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되고 중요한 기업간 협력 계약(기술수출, M&A 등)이 발표. 국제 행사에서 다루는 이슈 및 비즈니스 딜이 국내 헬스케어 섹터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음.

제약바이오 시장은 산업규모로만 보면 아직 내수 시장 사이즈. 하지만 국내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산업내 자금이 풀리고 있으며 바이오텍의 기업가치는 향후 글로벌 성장성을 반영해서 형성. 결국 글로벌 기업화 가능성이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투자해야 하며 글로벌 헬스케어 행사에서 대두되는 이슈와 관심 받는 국내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글로벌 최대
헬스케어 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2020년 1월 13일(월)부터 1월 16일(목)까지 4일간 07:30~18:30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Westin St. Francis Hotel에서 개최된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가장 큰 규모의 영향력 있는 헬스케어 행사 중 하나로 500여개 상장/비상장 기업이 참여해서 기업 IR을 진행하며 진행중인 신약 파이프라인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JP모건 헬스케어 행사를 통해 기업들 간의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되고 중요한 기업간 협력 계약(기술수출, M&A 등)이 발표 되기도 한다. 매년 12,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제약/바이오 행사로 국내 기업들의 참여도 20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JP모건 헬스케어는 1983년 H&Q(Hambrecht & Quist)가 주최한 헬스케어 행사가 그 시작이었으며 2000년에 Chase에서 행사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그리고 다음해 JP모건은 Chase Manhattan Bank와 합병하며 행사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였으며 JP모건 헬스케어 행사를 직접 진행하게 된다. 올해로 38회를 맞이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행사는 단일 헬스케어 행사로는 가장 큰 행사로 자리 잡았다.

행사 참여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참석은 초청(Invitation)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참가 의사가 있는 헬스케어 회사를 선별해 JP모건에서 초청을 하는 형식이다. 행사는 크게 발표행사와 1:1 개별 비즈니스 미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발표행사에는 M&A와 같은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공표하기도 하고 현재 진행중인 파이프라인 소개 및 진행 현황을 발표하기도 한다. 1:1 개별 미팅은 기업들간의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거나 또는 투자자와의 미팅이 주를 이룬다. 국내 신약개발 바이오텍들도 이러한 행사를 통해 글로벌 빅팜(Big Pharm)과 미팅을 진행하며 연구중인 파이프라인의 상업적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국내 헬스케어 산업은
아직 내수산업 규모
글로벌 기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주목해야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은 약 1,200조원 시장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시장규모는 글로벌 시장의 1~2%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참고로 치열한 치킨게임에서 승리한 국내 메모리반도체 기업들은 해외 소수의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독과점 하고 있다. 국내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매출규모가 곧 시장규모가 되는 상황이다. 이에 비하면 제약바이오 시장은 아직은 산업규모로만 보면 내수 시장 사이즈이다. 하지만 국내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산업내 자금이 쏠리고 있으며 바이오텍의 기업가치는 향후 글로벌 성장성을 반영해서 형성되고 있다. 결국 글로벌 기업화 가능성이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더 나아가 글로벌 헬스케어 행사에서 대두되는 이슈와 관심 받는 국내 기업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행사 Outlook

- 혁신주도 성장
- 환자의 Quality of Life
- BLA 신청수 증가
- 환자편의성 증대

행사 Outlook을 보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최근의 제약/바이오 산업 경향은 유사한 치료제 중심의 Price-Driven Growth(가격주도 성장)보다는 Innovation-Driven Growth(혁신주도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산업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차별적인 치료 효과도 중요하지만 치료 과정 중의 Quality of Life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이다. 환자들의 Quality of Life를 위해 신체 독성이 적고 질병만을 타겟하는 Gene Therapy(유전자 치료제), Cell Therapy(세포 치료제), Bispecific Antibodies(이중항체) 등의 새로운 치료 대안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인체 부작용이 적은 생물학제제를 통해 질병을 관리하려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BLA(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생물학제제 품목허가) 신청 건수도 NDA(New Drug Application)와 비교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Patient Affordability(약가 관련)도 신약개발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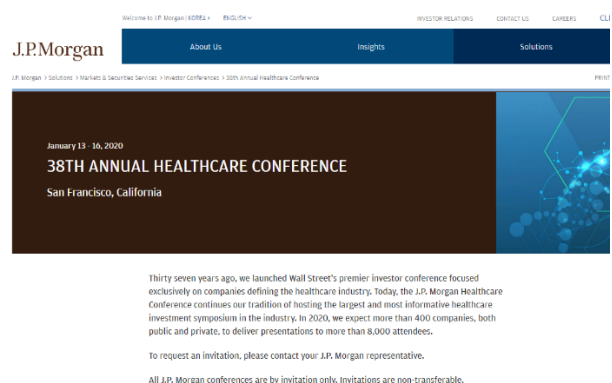
비용 효율적인 질병 통제와 환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융합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주목할 트렌드이다. Telemedicine(원격의료), Virtual Technology(가상화 기술)도 제약바이오 산업, 특히 환자 편의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적용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타 산업과의 융합이 상대적으로 더딘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신기술(New Technology) 도입과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가 중요한 경쟁요소가 되고 있다.

그림 1.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 기업발표회장



자료: JP Morgan Chase, IBK투자증권

그림 2.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 홈페이지



자료: JP Morgan Chase, IBK투자증권

표 1.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예상 기업 List

영역	기업	시총(억원)	구분	Details
바이오시밀러	삼성바이오로직스	227,020	KOSPI	CMO사업현황, 바이오시밀러 시장 침투 본격화
	셀트리온	227,500	KOSPI	램시마SC & 유럽/북미 시장전략 및 비전2030
바이오텍	에이치엘비	43,600	Kosdaq	美 자회사 Eleva Therapeutics가 비즈니스 미팅 진행
	한미약품	33,800	KOSPI	상용화단계 파이프라인 및 중장기 신약개발 로드맵
	유한양행	30,600	KOSPI	n/a
	제넥신	13,700	Kosdaq	GX-17 & GX-188E 가능성 & 파이프라인 현황
	에이비엘바이오	9,870	Kosdaq	ABL001, ABL301 & 이중항체 기술 플랫폼
	종근당	9,720	KOSPI	바이오시밀러 상용화, 합성신약 및 이중항체 항암제 파이프라인
	알테오젠	8,400	Kosdaq	n/a
	지트리비엔티	6,900	Kosdaq	n/a
	JW중외제약	5,900	KOSPI	n/a
	엔지켐생명과학	5,650	Kosdaq	EC 18 파이프라인 현황 및 NASH
	티움바이오	3,600	Kosdaq	TU2218(폐섬유증/면역항암제) & TU2670(자궁내막증)
	압타바이오	3,100	Kosdaq	n/a
	바이오솔루션	2,830	Kosdaq	카티라이프 美 임상 2상 승인 & 인체조직모델
	펩트론	2,470	Kosdaq	PT320/PAb001 파이프라인 현황 & 약효지속성 플랫폼
	싸이토젠	580	Kosdaq	순환종양세포(CTC)기반의 액체생검, 항암신약 개발 파트너십
보툴리눔독신	메디톡스	18,840	Kosdaq	중국 시장 진입(뉴로톡스) & 보툴리눔 독신 3종 글로벌 시장 전략
	휴젤	16,420	Kosdaq	국내외 사업 현황 및 해외 시장 진출 전략 & 향후 비전 발표
	대웅제약	15,100	KOSPI	기업소개, 나보타 해외 시장 현황 & R&D파이프라인 현황
기타	마이크로디지탈	510	Kosdaq	광학 기반의 POCT 의료 진단기기 등

자료: 회사자료, 보도자료, IBK투자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CMO사업현황, 바이오시밀러 시장 침투 본격화

메인 행사장 발표 예정

삼성바이오로직스는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메인 행사장(그랜드볼룸)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아시아 기업으로 메인 행사장에서 발표하는 기업은 日 Takeda(시총 70조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세 곳 뿐인 것으로 파악된다.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구축한 글로벌 제약사와 비교해서 매출규모는 작지만 성장성을 반영한 기업가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약 28조원, 셀트리온 23조원으로 글로벌 1st Tier Group에 진입했다고 평가한다. 참고로 매년 행사 발표는 김태한 사장이 진행했는데 올해에는 분식회계 관련 검찰수사로 참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바이오의약품 CMO 고객사 확대 전략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만L규모의 3공장을 준공하면서 세계1위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업체(CMO)로 떠올랐다. 글로벌 빅팜(Big Pharm)으로 부티의 생산수주도 늘어나고 있다. CMO사업은 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 이상의 과점 지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1/2/3공장 가동율을 높여 조만간 4공장 투자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JP모건 행사에서 CDO/CMO 사업성과 및 중장기 전략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본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침투 본격화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진행하는 바이오시밀러 사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가면역질환 파이프라인으로 SB4(ref. Enbrel), SB2(Remicade), SB5(Humira)가 출시되어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항암제 파이프라인으로는 SB3(Herceptin)이 출시 되었으며 SB8(Avastin)은 현재 임상 3상을 진행중이다. 안과 질환과 혈액질환에서는 각각 SB11(Lucentis), SB12(Soliris)가 임상 3상 단계에 있다. 바이오시밀러 제품군 출시가 시작되면서 그동안의 R&D투자가 실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에서 동사의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사업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 전략은 신약 확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중장기 성장 전략에는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도 있다. 파이프라인 SB26 (Ulinastatin-Fc)은 日 Takeda사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바이오신약으로 2018년 8월 FDA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아 급성 췌장염을 적응증으로 임상을 진행 중이다.

그림 3.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 및 바이오신약 파이프라인

	자가면역 질환				항암제	안질환	혈액질환	소화기 질환
프로젝트	SB4	SB2	SB5	SB3	SB8	SB11	SB12	SB26
대상 물질	Etanercept	Infliximab	Adalimumab	Trastuzumab	Bevacizumab	Ranibizumab	Eculizumab	Ulinastatin-Fc
Reference Drug (2018년 매출)	 \$7.4bn	 \$6.0bn	 \$20.5bn	 \$7.1bn	 \$7.0bn	 \$3.7bn	 \$3.6bn	-

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 IBK투자증권

셀트리온

램시마SC & 유럽/북미 시장전략 및 비전2030

후속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공개 예상

셀트리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처음으로 메인 행사장에서 발표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행사에서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직접 사업전략을 발표했는데 올해에도 직접 발표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11월에 유럽(EMA) 품목허가를 받은 램시마SC의 유럽출시 계획 및 전략 그리고 향후 북미시장 출시 계획에 대한 내용이 발표의 중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 후속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현황 및 작년에 제시한 비전2030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램시마SC의
유럽EMA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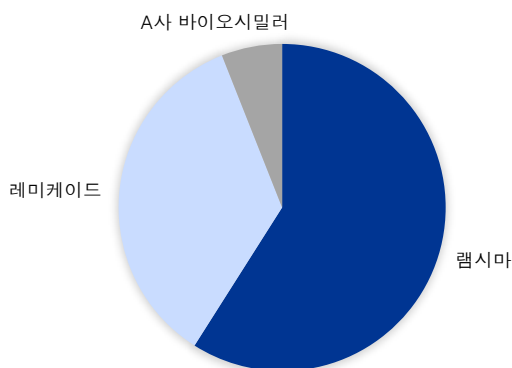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ref. Remicade) 램시마(Infliximab)는 오리지널과 같은 정맥 주사제로 개발되었다. 정맥주사제는 환자가 직접 약물을 주사하기 어려워 병원에 매번 방문해야 한다. 셀트리온은 투약 편의성을 개선한 SC(subcutaneous injection) 제형 램시마SC를 개발했고 2019년 11월 26일 셀트리온의 주력시장인 유럽(EMA)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 램시마SC는 내년 1분기에 류머티스 관절염을 적응증으로 유럽시장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램시마SC의 미국 시장 승인은 2022년 정도를 예상한다.

셀트리온의
비전2030

셀트리온은 작년에 기업비전 '비전2030'을 밝힌바 있다. 비전2030의 내용은 2030년까지 40조원을 투자해 2세대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생산시설을 인천 송도를 거점으로 현재의 5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1만명 이상을 직접 고용한다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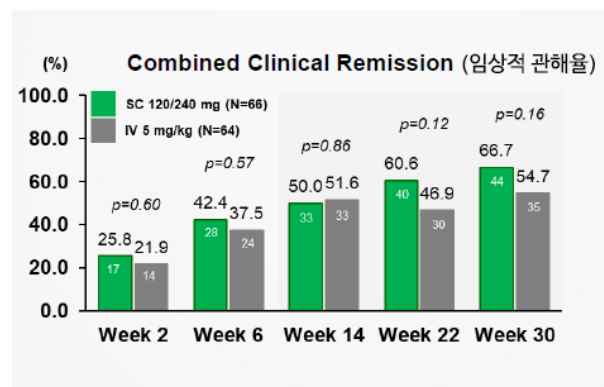
셀트리온은 후속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을 15개 이상 준비중이다. 면역의약품 6개, 항암의약품 4개, 기타의약품 5개 등에 대한 세포주 및 공정 개발을 진행중이다. 램시마SC 이후의 품목허가가 예상되는 대표 파이프라인으로 CT-P16(Avastin, 대장암 등) 글로벌 3상 진행중, CT-P17(Humira, 자가면역질환) 글로벌 3상 진행중 그리고 CT-P39(Xolair, 알레르기성 천식 및 만성 두드러기)이 임상 1상을 진행중이다.

그림 4. 램시마(Infliximab) 유럽시장 점유율(2Q19)



자료: 셀트리온, IBK투자증권

그림 5. 램시마SC의 IBD 임상결과 vs 램시마IV



자료: 셀트리온, IBK투자증권

한미약품

상용화단계 파이프라인 및 중장기 신약개발 로드맵

한미약품에게 의미가
남다른 JP모건 행사

한미약품에게 가장 의미가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2015년에 개최된 33회차 행사였다고 판단된다. 당시 한미약품은 자체 신약개발 플랫폼기술 랩스커버리(Lapscovery)와 24건의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2015년 11월에 Sanofi사와 39억 EUR 규모의 기술이전(퀀텀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기술 반환, 임상 실패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신약 개발 환경이 열악한 국내 환경을 고려하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의미있는 족적을 남긴 R&D 리더 기업임에 틀림 없다.

상용화단계 파이프라인
롤론티스, 오락솔 &
중장기 신약개발
로드맵 발표 예상

한미약품은 JP모건 헬스케어 행사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는 기업으로 38회 행사에도 참가해 비즈니스 미팅 및 중장기 신약개발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암제 파이프라인으로 품목 허가 단계에 있는 롤론티스(Rolontis, 호중구감소증)와 오락솔(Oraxol, 고형암)이 상용화를 앞두고 시장 진입 전략에 소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항체 플랫폼 펜탐바디와 NASH(비알콜성 지방간염) 파이프라인(LAPS-Triple Agonist), 비만치료제(LAPSGlucagon Analog)도 산업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기전 및 적응증으로 적극적인 파트너십 미팅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잇따른 파이프라인
임상실패
시행착오를 통해
글로벌 신약사로

한미약품은 기대 파이프라인이 연달아 실패하면서 주가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5년 美 Spectrum Pharmaceuticals에 기술이전한 포지오티닙(Poziotinib,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항암제 신약후보물질의 임상 2상 결과가 객관적반응률(ORR)이 목표치 17%에 미치지 못한 14.8%가 나왔다. 포지오티닙 임상은 현재 총 7개 코호트(Cohort)로 구성되며 발표된 결과는 이중 하나에 대한 결과이지만 시장의 실망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2019년 12월 27일 Spectrum사의 주가는 하루에만 60% 이상 폭락했고 한미약품은 이 정도의 쇼크는 아니었지만 주가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임상은 엑손20 유전자 변이가 나타난 비소세포폐암 환자 155명 대상의 임상이었다.

Spectrum사가 한미약품으로부터 도입한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롤론티스 (호중구감소증 치료제)가 있다. 2012년 한미약품이 Spectrum사에 기술이전한 파이프라인이다. 롤론티스는 초기 유방암 환자 643명 대상의 임상에서 안전성과 약효를 확인했으며 美 FDA의 BLA(생물의약품 허가신청) 심사에 들어갔다. 한미약품의 오라스커버리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 세포독성항암제 파클리탁셀을 경구제로 개발한 오락솔(2011년 Athenex에 기술이전)도 NDA 단계에 진입했다.

이중항체 플랫폼 ‘펜탐바디’(Pentambody)는 종양괴사인자 TNF- α 와 체내 면역물질 인터루킨-17A를 펜탐바디로 연결한 항암신약이다. 하나의 항체가 서로 다른 두개의 타겟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는 이중항체 면역항암제이다. 최근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이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중항체를 통한 암세포 제어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미약품의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의 특징이 다양해 지고 있어 파트너사들의 관심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

유한양행

레이저티닙의 임상 진행 현황 & NASH 파이프라인

공격적 R&D투자
파이프라인의 가능성 확대
- 레이저티닙(폐암)
- NASH

유한양행은 최근 대형 글로벌 제약사와 비즈니스 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동사는 그 어떤 기업들 보다 글로벌 헬스케어 행사에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은 레이저티닙(폐암) 파이프라인과 NASH(비알콜성지방간)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발 전략이 될 것으로 본다. 초기 임상 단계의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한 비즈니스 파트너십도 기대해 볼만 하다고 판단된다.

동사의 핵심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YH25448 레이저티닙(Lazertinib)은 폐암 표적항암제이다. 2018년 11월 5일에 Janssen Biotech에 총 12억5,500만달러 규모의 기술수출(한국을 제외한 글로벌지역 권리)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으로 5,000만불을 수령했다. 2019년 12월에 국내 식약처로부터 임상 3상 승인을 받았으며 1차 치료제를 타겟으로 개발중이다. 글로벌 임상은 레이저티닙 단독요법으로 2차 치료제 임상을 진행중이며 Janssen사의 이중항체 항암치료제 JNJ-6372와는 병용요법으로 1차 치료제 승인에 도전한다. 병용투여 임상 2상은 2020년 상반기 중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NASH 파이프라인
& 2건의 대형 기술수출

유한양행은 2019년 NASH(비알콜성지방간염) 신약후보물질에 대해 두 건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9년 1월에 Gilead Sciences사와의 7억8,500만달러(계약금 1,500만달러) 계약 그리고 2019년 7월에 Boehringer Ingelheim과 체결한 8억7,000만달러 계약이다. NASH는 현재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의학적 미충족수요가 높은 영역이다. 이번 행사에서 유한양행의 NASH 치료제 개발 전략 발표 및 임상 진행 현황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유한양행 주요 파이프라인 현황

구분	적응증	과제명	후보물질	전임상	임상1상	임상 2상	임상 3상
신약	항암제(표적 폐암) (Lazertinib)	YH25448					
	퇴행성디스크	YH14618					
	수술 후 장폐색증	YH12852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YH25724					
	항암제(면역)	YH24931					
	천식	YH25487					
	항암제	YH25248					
개량신약	순환기	AD-201					
	순환기	AD-207					
	소화기	AD-203					
	소화기	AD-206					

자료: 유한양행, IBK투자증권

제백신

GX-I7 & GX-188E 기능성 & 파이프라인 현황

핵심 파이프라인
GX-I7 & GX-188E
& 파이프라인 현황

제백신은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해 핵심 파이프라인 GX-I7(하이루킨)과 GX-188E(HPV 치료백신)에 대한 First in Class 항암제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GX-I7은 임상 1b상에서 보여준 고형암 대상의 효능과 T-cell Amplifier로서의 우수한 면역 효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GX-188E(HPV 치료백신)는 자궁경부암 환자 대상으로 진행된 Keytruda 병용 임상 2상 중간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표는 제백신 성영철 회장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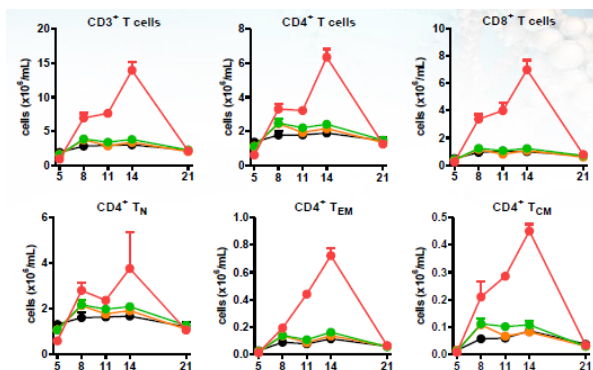
GX-I7(하이루킨)
면역항암제

GX-I7(하이루킨 Hyleukin-7)은 체내 T세포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터루킨-7(Interleukin, 사이토카인에 속하는 분자)에 제백신의 지속형 기술을 적용한 파이프라인이다. 세포독성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환자 대부분에게서 나타나는 림프구감소증(Lymphopenia) 현상에 치료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백신은 2017년 12월에 GX-I7(암 적응증) 파이프라인을 I-Mab사에 총 5억6,000만달러(No반환 계약금 1,200만달러)에 중국/대만/홍콩/마카오 지역에 대한 권리를 기술이전 한 바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 고형암 환자 60명 대상으로 임상 1b를 진행중에 있다. 중국내 GX-I7 임상 2상 진입은 2020년경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제백신은 기술이전 시점에 파트너 I-Mab사 지분 취득에 242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현재 지분율 8.3%). GX-I7에 대한 임상 1b상(고형암) 결과를 2019년 11월 SITC(면역항암제 학회)에서 발표한 바 있는데 T-cell Amplifier로서의 우수한 면역 효과를 보여준 바 있다.

GX-188E(HPV치료백신)
자궁경부암 임상2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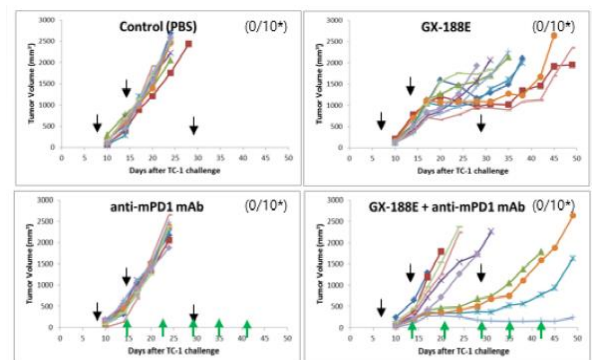
GX-188E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치료백신으로 Merck의 면역관문억제제 키트루다(Keytruda, Pembrolizumab)와 자궁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병용투여 임상을 진행 중이다. GX-188E는 체내 면역시스템을 활성화해 HPV에 감염된 세포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도록 유도하고 재발율을 감소시킨 유전자 기반 치료 백신이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GX-188E 단독 투여에 따른 효과도 있지만 anti-PD-1/PD-L1 계열의 치료제와 병용 투여시 그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 7. Hyleukin-7이 T-cell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줌



자료: 제백신, IBK투자증권
참고: IL-7과의 비교 데이터 AACR 2018

그림 8. PD-1/PD-L1 계열 의약품과 병용투여시 우수한 효과



자료: 제백신, IBK투자증권

에이비엘바이오

ABL001, ABL301 파이프라인 현황 & 이중항체 기술 플랫폼

핵심 파이프라인
ABL001/ABL301 포함
이중항체 파이프라인
파트너십 기대

에이비엘바이오도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된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 파이프라인 ABL001(이중항체 항암제)와 ABL301(파킨슨병)를 포함해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ABL10X, ABL50X, ABL40X)에 대한 비즈니스 미팅이 예상된다.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신약 물질은 체내 효능 이외에도 혈액뇌관문(BBB) 통과능이 신약 개발 가능성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뇌질환에 작용하는 BBB통과 물질은 비임상 단계에서도 기술이전 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ABL301(파킨슨병)은 글로벌 제약사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될 것으로 본다. ABL001도 항암 효과가 높은 신생혈관 억제 기전 신약으로 Best in Class로 개발되고 있으며 파트너사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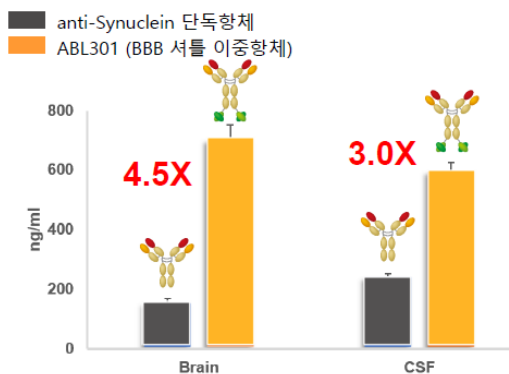
ABL001 이중항체 항암제
VEGF와 DLL4 동시 억제

ABL001(이중항체 표적항암제-고형암)는 에이비엘바이오에서 임상단계(임상 1상 진행 중)로 가장 앞서 있는 파이프라인이다. 신생혈관 억제 기전의 대표 항암제로는 Roche사의 Avastin, Lilly사의 Cymaza가 있으며 anti-VEGF 신생혈관억제 기전으로 암세포를 제어한다. 효과적인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내성 효과와 공격적 전이성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어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존재하는 영역이다. ABL001은 VEGF와 DLL4 동시 억제를 통해 VEGF 치료제에 대한 내성 극복이 가능한 파이프라인이다.

ABL301 파킨슨병 치료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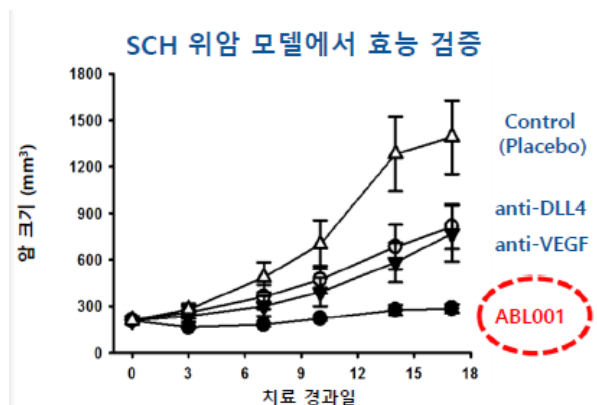
파이프라인 ABL301(파킨슨병)은 혈액뇌관문(BBB, Blood Brain Barrier) 통과능이 우수한 α -Synuclein 응집체 제거 기전의 신약이다. 생물학 제제는 혈액뇌관문(BBB)을 통과해서 CNS(Central Nervous System) Target에 도달하기 어렵다. 실제 투약 용량의 0.1%의 미미한 양만이 병변에 작용하며 효능(Efficacy)을 위한 용량 증가와 비례해서 부작용(Side Effect)도 증가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 어려운 영역이다. 에이비엘바이오의 ABL301(비임상 단계)은 BBB서를 플랫폼 기술을 통해 Anti-Synuclein 단독항체 대비 높은 BBB통과능을 보여주며 CNS target 응집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그림 9. ABL301의 CNS target 전달률이 단독항체 보다 우수



자료: 에이비엘바이오, IBK투자증권
참고: ABL301 30mg/kg 투여 vs anti-Synuclein 단독항체, CSF(뇌척수액)

그림 10. ABL001의 이중 표적에 의한 위암 억제 효과



자료: 에이비엘바이오, IBK투자증권
참고: 위약군과 DLL4/VEGF 단독항체 의약품과의 비교 데이터

종근당

바이오시밀러 상용화, 합성신약 및 이중항체 항암제 파이프라인

비즈니스 협력을 통해
파이프라인 및 R&D 역량
업그레이드 기대

종근당은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비즈니스 미팅 및 파트너십 목적으로 참가를 계획하고 있다. 종근당은 사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 합성의약품(제네릭/개량신약)과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신약/시밀러)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적합한 빅팜(Big Pharmaceuticals)과의 비즈니스 협력은 동사의 R&D역량과 파이프라인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의 파이프라인이 해외 파트너사로부터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 협력 및 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이번 행사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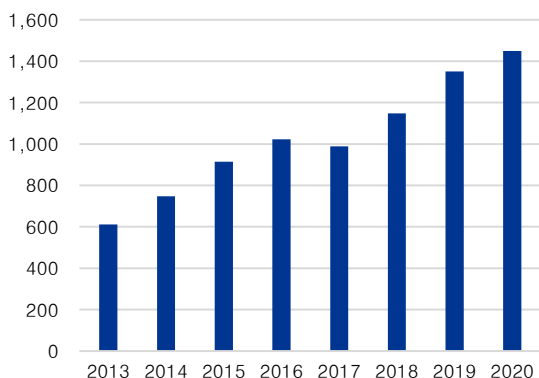
바이오시밀러 상업화

CKD-11101 네스벨(Nesp 바이오시밀러)이 상업화에 성공을 했다. 전년도 3분기에 일본에서 네스벨의 품목허가를 획득하였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간다. 네스벨은 만성신부전 환자가 겪는 빈혈 증상을 적응증으로 하는 치료제이다. CKD-701 항반변성 바이오시밀러(Lucentis 바이오시밀러)는 2018년 2분기 국내 3상에 진입해서 임상 진행중에 있다. 신약쪽에서는 이중항체 항암제(폐암) 파이프라인 CKD-702를 개발중이다. 전임상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1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의 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이 성과를 보이는 시점으로 바이오의약품 시장 진입에 날개를 달아줄 적합한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합성신약쪽 파이프라인으로 유럽 임상 2상을 진행중인 CKD506(자가면역질환)과 국내 임상 3상을 진행중인 CKD516(대장암)에 대한 적극적인 소개도 예상된다.

공격적 R&D투자

종근당은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포트폴리오(바이오신약/바이오시밀러/개량신약/해외사업) 구축을 위해 R&D투자금액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2013년 612억원이었던 R&D 투자금액은 2019년에는 1,300억원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R&D 인력도 같은 기간 300여명에서 최근 500여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R&D 투자금액 증가와 비례해서 보유 파이프라인의 가치 또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천안에 있는 2012년에 완공된 바이오의약품 공장도 파이프라인 대응 및 바이오시밀러 임상시료 및 상업화 일정에 맞춰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그림 11.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R&D투자금 증가



자료: 종근당, IBK투자증권

그림 12. 신약 개발 역량 보유 - 듀비에정, 캄토벨



자료: 종근당, IBK투자증권

알테오젠

ALT-B4 추가 기술 라이선스 수출 기대 & 파이프라인 현황

핵심 파이프라인

- ALT-B4
- 바이오시밀러/베터
- ADC 항체약물접합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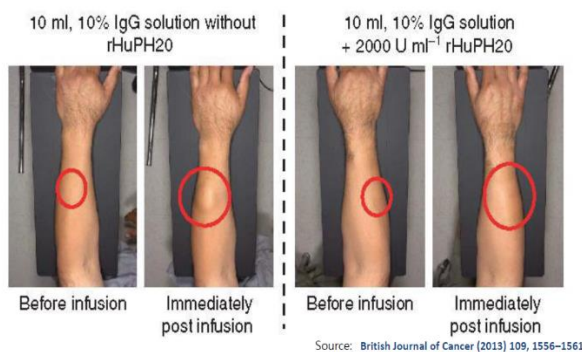
알테오젠은 동사의 핵심 기술인 SC제형화 기술(ALT-B4)에 대해 2019년 11월에 기술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동사는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해 ALT-B4에 대한 제형화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바이오의약품 업체들은 특허 연장 및 환자 편의성 증대 목적으로 기존 바이오의약품의 SC제형 품목개발 니즈가 커지고 있으며 알테오젠의 ALT-B4가 시장의 니즈를 충족하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으로는 Herceptin(항암제) SC제형 바이오시밀러와 Eylea(황반변성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ALT-B4 이외에 바이오시밀러/바이오베터 파이프라인과 ADC 파이프라인에 대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위한 미팅도 기대해 볼만하다.

인간 Hyaluronidase

ALT-B4 추가 L/O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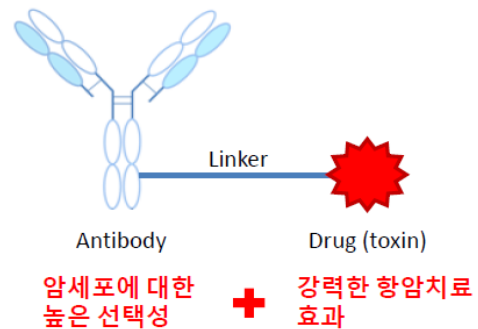
단백질 치료제의 약물 전달 방법은 일반적으로 약물 전달 효율이 좋은 정맥 주사(IV)를 이용한다. 하지만 약물 투여 시간이 길고 환자가 병원에 매번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크다. 이에 따라 동일 물질의 의약품을 피하주사(SC)형태로 전환하는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피하주사제는 짧은 시간에 자가 주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용량이 많은 항체치료제를 피하 주사하기 위해서는 Hyaluronidase 효소를 혼합해서 주사해야 한다. 알테오젠은 정맥주사용 의약품을 피하주사용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ALT-B4)을 자체적으로 확보했다. 그리고 2019년 11월 29일 ALT-B4에 대해 13억7,300만달러(계약금 1,300만달러) 규모의 비독점적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ALT-B4는 플랫폼 기술형태로 추가 기술 라이선스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3. 피하조직을 통한 약물 전달, SC제형화 기술(ALT-B4)



자료: 알테오젠, British Journal of Cancer, IBK투자증권

그림 14. ADC 표적 항암 치료제 - ALT P7



자료: 알테오젠, IBK투자증권

엔지켐생명과학

EC 18 파이프라인 현황 및 NASH

해외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점

엔지켐생명과학도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사의 독점적 플랫폼 기술인 EC-18에 대한 내용이 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에서 동사의 독자 플랫폼인 EC-18에 대한 소개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논의가 주 목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새롭게 진행중인 NASH는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적응증으로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을 기대해 볼 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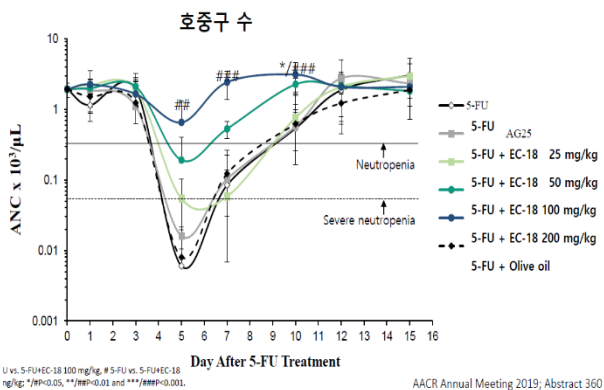
EC-18 대표적응증
호중구감소증
구강점막염

EC-18(First in Class)은 지질기반의 저분자 화합물로 개발중인 신약으로 체내 염증조절과 호중구 이동을 조절하는 효능을 보여준다. EC-18 파이프라인 중 가장 앞서는 적응증은 호중구 감소증(CIN)과 구강점막염(CRIOM) 치료제로 현재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중에 있다. 가장 기본적인 암치료로 세포독성 항암제와 암부위 국소 방사선 치료가 이용되는데 세포독성 항암제 치료를 받는 암환자의 경우 항암제 독성으로 인해 혈중 호중구가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지속적인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구강점막염이 발생하고 식사에 곤란을 겪게 된다. 암치료에는 환자의 생명과 함께 생존중 Quality of Life가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구강점막염 적응증은 FDA로부터 혁신치료제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 3분기에 타라핀 결과 발표가 예상된다.

신규 적응증
NASH에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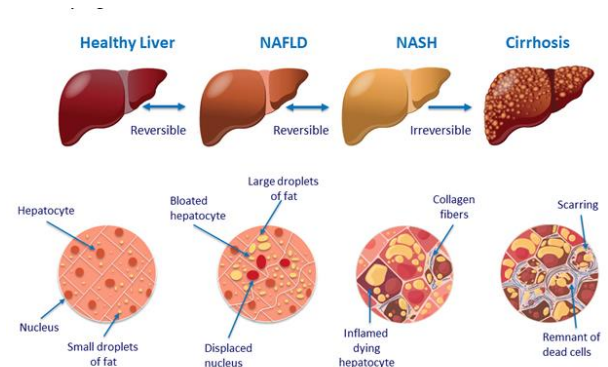
현재 호중구감소증 기본치료제로 G-CSF제제(ex: 암젠의 뉴라스타 등)가 투약된다. G-CSF는 골수세포 자극을 통해 호중구 생성을 증가시키는 치료제로 호중구 증가 효과가 일시적이고 골수자극제 지속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엔지켐생명과학의 EC-18이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호중구 치료제는 2019년 5월에 임상 2a를 마쳤으며 임상 2b를 준비중에 있다. 동사는 EC-18의 신규 적응증으로 NASH(Non Alcoholic Steato Hepatitis)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NASH는 현재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시장으로 관련 시장은 20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대형 제약사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이다.

그림 15. 5-FU 항암제와 EC-18 투여에 따른 호중구 수 변화



자료: 엔지켐생명과학, IBK투자증권

그림 16. 지방간(NAFLD) > NASH(간염) > 간경화(Cirrhosis)



자료: HPV-trials, IBK투자증권

티움바이오

TU2218(폐섬유증/면역항암제) & TU2670(자궁내막증)

희귀난치질환 중심의
신약개발 역량

티움바이오는 희귀 난치 질환 중심의 신약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행사에 참여가 예상된다. 대표 파이프라인은 TU2218(특발성폐섬유증, 면역항암제)으로 약물전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도 흡입제형으로 개발중이다. 2021년 임상 1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임상에서 보여준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TU2218은 TGF- β 에 작용하는 기전으로 면역항암제로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즈니스 딜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대원제약에 기술이전한 TU2670(자궁내막증/자궁근종 치료제)도 2020년 임상 2상에 진입한다는 목표로 효능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이전 계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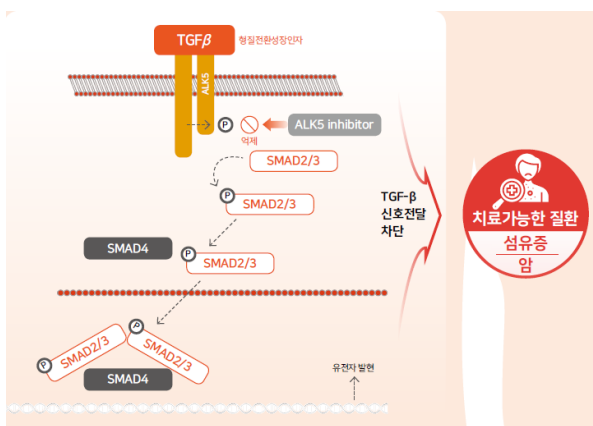
TU2218
특발성폐섬유증
면역항암제

특발성폐섬유증(IPF,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치료제는 파이프라인명 TU2218(Small Molecule)로 진행중이다. 특발성폐섬유증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폐 조직이 엉겨붙어 섬유화가 진행되는 질환으로 폐암으로 진행되는 전단계에 자주 발견된다. TGF- β (Transforming Growth Factor Beta, 형질전환증식인자)는 체내 작용하는 강력한 섬유인자로 조직의 섬유화를 촉진시키고 중앙미세환경을 형성하여 항암제 투여시 약물 침투를 방해하고 암세포가 신생혈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주요 인자이다. TU2218은 ALK5 Inhibitor 로 TGF- β 의 신호전달을 차단해 폐조직이 섬유화되는 것을 차단하는 물질이다.

TU2670
자궁내막증/자궁근종

티움바이오는 2018년 12월 21일에 TU2218에 대해 7,400 만달러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기술이전 계약자는 글로벌 제약사인 Chiesi사(Chiesi Farmaceutici)로 총 계약규모는 7,400만달러이며 2019년 1월에 반환 의무 없는 계약금(upfront) 100만 달러를 수령하였다. Chiesi사에 전달된 권리는 호흡기질환에 한정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임상/허가/생산/상업화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이전하였다. 2019년 2월 25일에는 대원제약과 40억원 규모의 TU2670 기술이전(국내 전용실시권)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림 17. ALK5 저해제의 작용 기전



자료: 티움바이오, IBK투자증권

그림 18. 섬유화된 폐세포 조직 vs 정상 폐포



자료: 티움바이오, IBK투자증권

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美 임상 2상 승인 & 인체조직모델

바이오솔루션
JP모건 헬스케어 행사
첫 초청장 수령

바이오솔루션은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행사에 처음 초청을 받았다. 바이오솔루션은 JP모건 행사를 통해 동사의 핵심 파이프라인 카티라이프 소개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굴하는 것이 행사 참여의 주 목적이 될 것으로 본다. 관절연골재생 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는 2019년 11월 14일 美 FDA로부터 임상 2상 계획을 승인 받았다. 美 FDA에서 국내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1상 없이 바로 2상에 진입하였다(50명 규모). 인체조직 모델도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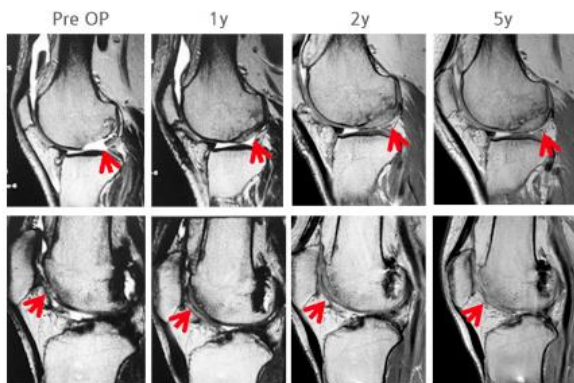
카티라이프 & 조직모델
주요 발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

카티라이프는 환자 본인의 연골조직에서 분리/증식한 세포 분화 전단계의 연골전구세포를 직경 1mm 사이즈의 작은 구슬 형태로 연결/조직화한 제품이다. 시술과정은 환자의 손상된 연골 병변을 정리하고 관절강에 카티라이프를 주사하여 새로운 세포를 이식한다. 환자 자신의 연골조직을 직접 배양/이식하기 때문에 면역반응에 의한 염증 발생이 거의 없다. 관절연골 소실에 따른 통증 수술로 많이 시행되는 미세골절술과 비교해도 연골의 구조적 재생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카티라이프는 2019년 4월 임상을 통해 연골재생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슬관절(무릎관절)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현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염증 개선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3상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퇴행성 관절염 시장에서 염증 억제 효과 보다는 재생 효과가 훨씬 입증하기 어려운 지표임을 고려하면 임상 프로토콜 재설계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솔루션의 인체조직모델 사업도 전세계적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야이다. 동물실험의 대안으로 사람의 세포로 만든 3D 인공조직을 활용하려는 시도이다. 동사가 개발한 각막모델(MCTT HCE)이 2019년 4월 국제 독성평가 가이드라인(OECD TG)에 세계 4번째로 등재가 되어 해외 파트너십 계약이 수월해진 상황이다.

그림 19. 카티라이프의 연골재생 효과 확인



자료: 바이오솔루션, IBK투자증권

그림 20. 연골전구세포 주사제 - 카티라이프



자료: 바이오솔루션, IBK투자증권

펩트론

PT320/PAb001 파이프라인 현황 & 약효지속성 플랫폼

PT320/PAb001 &
약효지속성 기술 관련
비즈니스 미팅 예상

펩트론은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첫 참여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펩트론의 대표 파이프라인 PT320(파킨슨병 치료제)과 PAb001(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에 대한 파이프라인 소개 및 임상 현황에 대한 비즈니스 미팅이 예상된다. PT320은 아직 효과적인 치료제가 부재한 뇌질환(파킨슨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임상 2상 효능 검증단계에 있어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PAb001(ADC 항체항암제)은 동물임상을 통해 삼중음성유방암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향후 동사의 중요한 파이프라인으로 투자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 동사의 대표 파이프라인과 약효지속성 플랫폼 기술(SmartDepot)에 대한 비즈니스 딜을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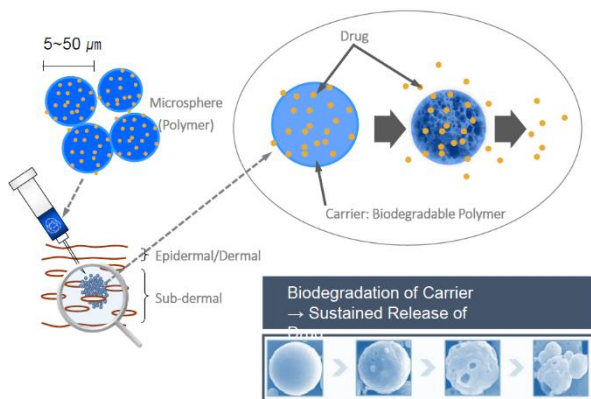
PT320(파킨슨병)
Exenatide 지속형 제제

펩트론의 대표 파이프라인 PT320(파킨슨병 치료제)은 동사의 펩타이드 기반 약물을 최대 6개월까지 약효지속성을 늘려주는 SmartDepot 플랫폼 기술을 사용한다. SmartDepot은 생분해성 고분자(Polymer)를 캐리어로 이용하여 5~50um 사이즈의 약효지속형 미립구(Microsphere)를 제조한다. 체내 무해한 생분해성 고분자 캐리어가 서서히 생분해되며 체내 약물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술이다. PT320은 당뇨치료제로 개발된 GLP-1제제(Exenatide)로 파킨슨과 알츠하이머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사는 PT320을 1~2주에 1회 투여하는 지속형 제제로 식약처 임상 2상을 진행중에 있다. 임상 2상 결과를 갖고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전을 통한 상용화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2상 완료시점은 2021년이 될 것으로 본다.

PAb001(유방암)
항체항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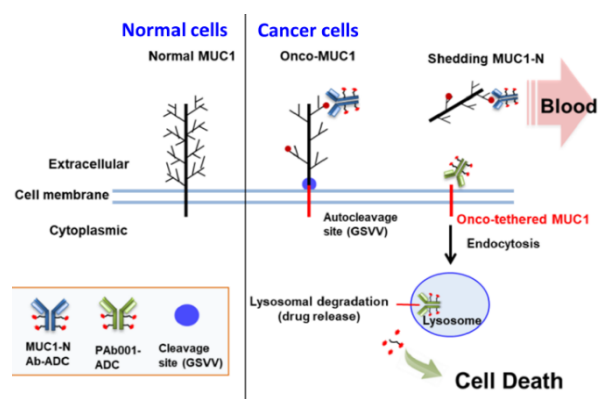
항체신약 파이프라인으로 삼중음성유방암(TNBC)을 적응증으로 하는 PAb001이 있다. PAb001과 암세포에서 과다 발현되는 당 단백질인 뮤신1(MUC1)을 타겟으로 하는 anti-MUC1 targeting 항체의약품이다. 뮤신1은 항암제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타겟 중 하나로 고형암 타게팅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사는 PAb001과 항암제를 결합한 ADC(Antibody Drug Conjugate)로 개발중이며 현재 전임상을 통해 신약 가능성을 확인한 상황이다.

그림 21. 약효지속형 펩타이드 제조 플랫폼 - SmartDepot



자료: 펩트론, IBK투자증권

그림 22. MUC1 타겟의 세포내 기전 - PAb001



자료: 펩트론, IBK투자증권

싸이토젠

순환종양세포(CTC)기반의 액체생검, 항암신약 개발 파트너십 기대

순환종양세포(CTC) 기반
액체생검(Liquid Biopsy)
전문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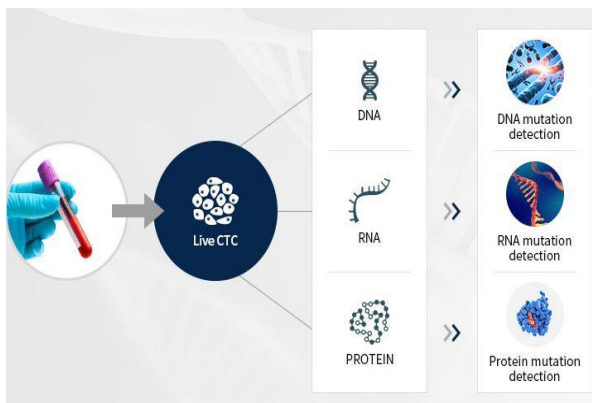
싸이토젠은 순환종양세포(CTC)기반의 액체생검(Liquid Biopsy) 전문기업으로 순환종양세포 분석 기술 파트너십 미팅을 위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제약바이오 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액체생검 영역에서 기술 소개 및 비즈니스 딜을 위한 미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급격하게 커지는 암시장을 대상으로한 액체생검은 암시장과 비례해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이다. 이번 년도 행사에서는 항암제 파이프라인 발표 및 파트너십 체결을 위한 미팅이 전년도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사가 다음 단계의 도약이 가능하게 하는 파트너십을 기대해 볼만 하다.

순환종양세포(CTC)로
항암 바이오마커 발굴

순환종양세포(CTC)는 원발암에서 떨어져나온 암세포로 혈액을 통해 다른 장기로 암전이를 일으키는데 순환종양세포 채취 및 세포 유전자 분석을 통해 암치료를 위한 바이오마커를 발굴할 수 있다. 이렇게 순환종양세포를 통해 발굴한 바이오마커를 통해 암치료 개발 그리고 암전이 예측이 가능하다. 암확진은 일반적으로 조직생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조직생검은 침습적 진단방법으로 조직채취 부위의 출혈 및 감염의 위험이 존재하며 환자가 느끼는 부담이 큰 진단 방법이다. 이에 반해 액체생검은 보다 효율적이고 손쉬운 방법으로 암정보를 확보하고 진단이 가능한 방법이다.

싸이토젠은 혈액내에 존재하는 순환종양세포를 분리해 내는 HDM(High Density Micro-porous)기술을 개발하였다. 분리된 종양세포의 Single Cell RNA Sequencing(서열분석)을 통해 암 치료를 위한 바이오마커 발굴 그리고 항암제 처방을 위한 동반진단 영역에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Daiichi Sankyo와 NSCLC(비소세포폐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순환종양세포 분석 및 바이오마커 발굴 플랫폼 서비스를 계약을 체결하여 R&D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23. 중앙순환세포(CTC) 채취 및 DNA/RNA/단백질 분석



자료: 싸이토젠, IBK투자증권

그림 24. 혈액내 암전이를 유발하는 혈내순환세포 채취 기술



자료: 싸이토젠, IBK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세화피앤씨)의 유가증권발행과 관련하여 주관사로 참여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명	담당자	담당자(배우자) 보유여부			1%이상 보유여부	유가증권 발행관련	계열사 관계여부	공개매수 사무취급	IPO	회사채 지급보증	중대한 이해관계	M&A 관련
		수량	취득가	취득일								

해당사항없음

투자의견 안내 (투자기간 12개월)

종목 투자의견 (절대수익률 기준)			
적극매수 40% ~	매수 15% ~	중립 -15% ~ 15%	매도 ~ -15%
업종 투자의견 (상대수익률 기준)			
바중확대 +10% ~	중립 -10% ~ +10%	비중축소 ~ -10%	

투자등급 통계 (2017.10.01~2018.09.30)

투자등급 구분	건수	비율(%)
매수	127	84.1
중립	24	15.9
매도	0	0.0